포용적 통합돌봄 복지도시 조성 '박차'

'노인 의료·돌봄' 공모사업 선정
오는 2025년까지 27억여원 투입
어르신 신체적·정서적 건강 지원
주거지 화재 예방 서비스도 제공

광주시 북구가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통합돌봄 복지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북구는 올해 사업비 5억 6,000만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며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 등 27억여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밀착 의료지원을 위해 방문의료 TF팀 구성 등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르신 밀집지역 이동진료, 집중 케어 어르신 AI 의료 돌봄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양사 돌봄, 이·미용, 구강케어, 북치료 서비스 등 일상생활 속 방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형 정신건강 진단과 주거지 화재 예방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연계와 민관협력 확대로 사랑의 집수리, 목욕, 청소 지원 등 다양하고 촘촘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번 사업에 내실을 기해 지역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마을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북구는 23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9개 복지 기관·단체와 '광주다움 통합돌봄 수행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따뜻하고 촘촘한 북구형 통합돌봄 모델 창출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복지 ▲보건의료 ▲봉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복합 돌봄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복지분야에서는 동신지역자활센터,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희망지역자활센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북구지회, 요셉행복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광주북구한의사회, 대한물리치료협회 광주광역시회 등 2개 기관이 참여하며, 북구종합재가센터,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등도 참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구는 대상자 필요서비스 기재 및 의뢰 등 행정적인 지원을 보태고, 수행기관은 필수·정기교육 등을 이수한 훈련된 전문인력을 파견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의 지속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기관에서는 전문 인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복지수요가 복합적이고 다양화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역시 이에 맞춰 가야 한다"며 "이번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이 모든 계층 주민의 복지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역사회 촘촘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조기성공 정착과 '북구형 통합돌봄 모델창출'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사업 운영지침 숙지 및 통합사례관리 이해 등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최환준 기자

민방위 장비 검열 22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민방위 비축물자창고에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직원들이 비상사태를 대비해 화생방 방독면, 지휘용 앰프 등 민방위 장비를 검열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지역 소상공인 안정적 정착 돕는다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지원

광주시 북구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소상공인들의 성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창업 소상공인들의 성공 정착과 지속경영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을 위해 민선8기 제1호 결재로 마련한 '민생경제상생회복기금'으로 진행하며, 지역 소상공인 140개소를 지원한다.

우선 각종 지원사업, 컨설팅, 채무조정 제도 등 창업·경영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한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한다.

또한 판매촉진을 위해 개소당 20만원 이내의 맞춤형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e-커머스 플랫폼, 상세페이지 제작, 로고·디자인 제작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성공사례 워크숍, 창업박람회 견학 등을 실시해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정책 정보 등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풀뿌리 경제주체인 지역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성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디딤돌 3무 특례보증, 이달의 가게 선정,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광주 최초' 청소년 흉터·문신 제거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광주시 북구가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흉터·문신 제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흉터, 문신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제거 시술 의료비와 심리 상담을 함께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주소를 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과 기관·시설 등이 추천한 청소년이다.

북구는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청소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을 제공해 장기치료, 심한 통증 등으로 인한 시술 중도 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기관,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건강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연말 여성가족부 주관 '2022년 청소년 정책평가'에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환준 기자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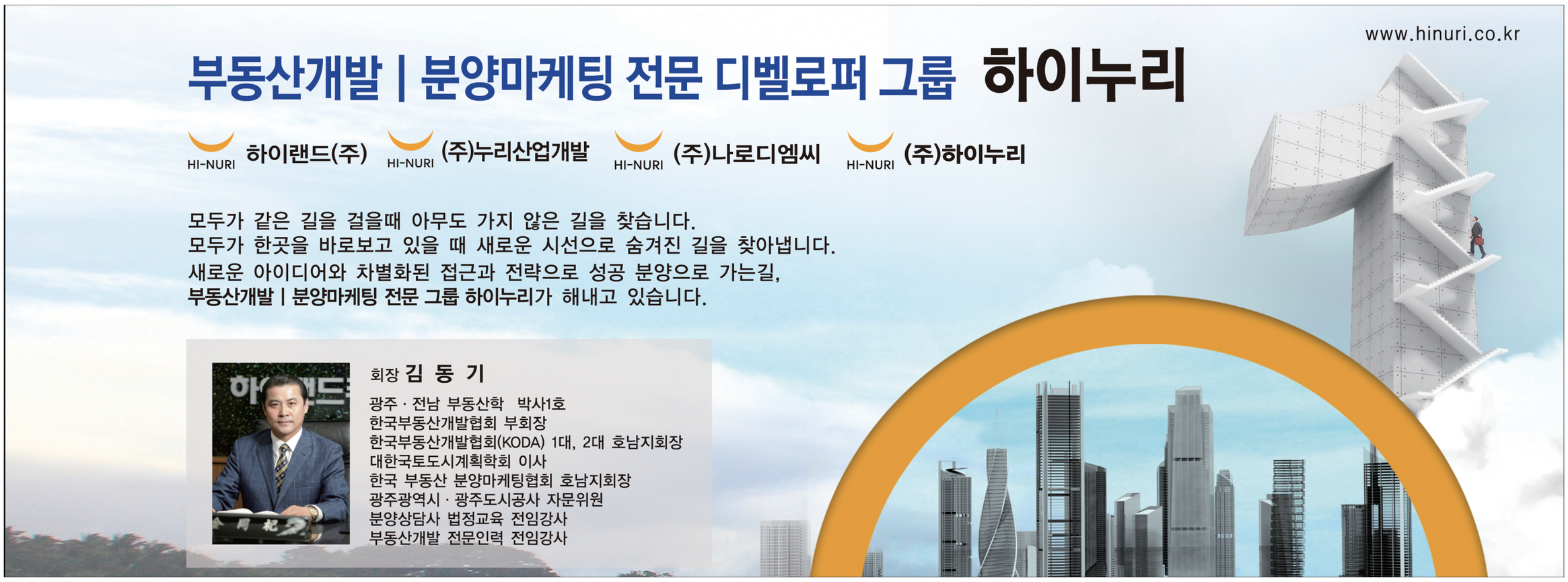
기관표창·상사업비 1억 확보

광주시 북구는 광주시가 주관한 '2022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여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세정업무 실적에 대해 ▲지방세정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북구는 평가항목 전반에 대해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이어 올해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 징수기동반, 전 직원 책임징수제,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과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 연구동아리도 운영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생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수범시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눈에 보는 세무정보 유튜브 영상 제작, 북광주세무서와 세정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주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납세편의 제공과 재정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